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호주에서 소식 전합니다.

긴겨울을 지나 포근한 햇볕이 새일을 돋게 하는 시드니의 아침입니다. 또 다른 계절을 맞는 기대와 설렘의 반면에 세계 곳곳은 아직도 전쟁, 태풍, 홍수 등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고통으로 신음 중에 있습니다. WHO 의 의견에 따르면, COVID-19 의 끝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들먹거리며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기도로 다시금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영적전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사역보고와 기도제목

호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와 현장업무를 병행하는 체제로 바꾸게 되면서 직장인들의 생활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또 어떻게 적응하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가가 당면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가 동일하듯이 호주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렌트비를 감당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고, 가계의 어려움은 교회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예배처소를 가정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온라인예배라는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오지 않고도 영적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니 교회는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과 현장예배를 번갈아 드려오다가 이제 완전히 현장예배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며, 매 주 준비된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대일 양육: 3 년간의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지만, 남은 이들, 교회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과 주중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또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비자, 직장, 자녀교육 등)이 해결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외예배: 10 월 첫 주(10 월 2 일)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하여 10 월 중 단합과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야외로 나가 예배드리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려 계획 중입니다. 가능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들로 인해 지난해 수차례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번씩 앉았고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으니 가능할 줄 생각합니다. 정부지침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여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새벽예배: 매일 아침,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제목들을 나누어 기도합니다. 호주의 여건상 가정에서 저희 부부만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부소식: 현재 제가 지부장으로 있는 호주지부는, 필리핀지역이 분권 분리됨에 따라, 태평양지역으로 승격 청원 중에 있습니다. 태평양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팀사역을 위해서는 현 지부(호주, 뉴질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체제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승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지부원들의 생각입니다. 청원이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저희는 9 월 19 일 오랫동안 거주하던 Lidcombe 지역을 떠나 Kogarah(동남부)로 이사하였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한인이 거의 없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건강히 잘 적응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국방문: 그리고 저희는 10 월 7 일 가족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연락처: 010 6614 8966)

기도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성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또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위하여 호주에서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2 년 9 월 26 일 호주 시드니 에서,
 황운고, 오계현 선교사 올림